한 마디 말보다 무거운 기록,
국민은 김문수 후보의 내란비호를 기억합니다.

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해 마지못해 아주 가볍고 뒤늦은 사과를 선심 쓰듯이 던졌습니다. '죄송스럽게 생각한다' 라는 짧은 말은 그 진심마저 의심케 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말장난이었습니다.

김 후보는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분명하고 한결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

▲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위헌이 아니다.
▲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데 동의할 수 없다.
▲ 계엄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.
▲ 헌법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.

심지어 어제 아침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"국회에서 저보고 국회의원들이 큰 절을 해라... 나는 죽어도 거짓말 하는 거는 못한다...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" 라고 자랑했습니다.

이것이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160일(5/12)이 지나기까지 일관되게 외쳐온 김 후보의 말이었습니다.

그 긴 시간 동안 김 후보는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반성하지 않았고, 사과하지 않았습니다. 그랬던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바로 어제 밤, 갑작스럽게 사과를 선심 쓰듯이 무성의하게 국민들께 던져 놓았습니다.

김 후보에게 묻습니다.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십니까? 국회와 국민 앞에서 윤석열 내란을 꿋꿋하게 지지하여 국민의힘 대권후보까지 손에 쥔 당신의 말을 이제와서 국민이 믿으라는 것입니까? 선거 직전의 마지못한 사과가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? 김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.

국민은 김 후보의 이번 사과가 진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. 표를 위한 계산입니다. 이것은 책임이 아닙니다.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장사치의 기만술에 불과합니다.

그래서 "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" 은 <김문수 내란비호집>을 국

민들께 보고드립니다.

이 문서는 김 후보가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두둔하며 쏟아낸 수많은 발언을 정리한 기록입니다. 정치인의 말은 바뀔 수 있지만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. 사과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.

정치인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.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자세와 국민의 상식을 믿는 용기에서 나옵니다.

이번 선거는 그 태도를 묻는 자리입니다. 누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, 누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.

계산된 사과보다 강한 것은 국민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.

2025년 5월 13일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